자 료 집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농촌 일자리 창출방안 -






2010. 03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자 료 집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농촌 일자리 창출방안 -

2010. 03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본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 전문가의 전문지식과 실무자 등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전라북도의 **농촌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Ⅰ 행사개요

▢ 주　　제 : **농촌 일자리 창출방안**

▢ 일　　정 : 2010년 **3**월 **11**일(목) 10 : 00 - 12 : 30

▢ 장　　소 : 전북도청 **소회의실** (9층)

▢ 참 석 자 : **도내・외 전문가**(발제자, 토론자), **도관계자** (전북도청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과, 노인정책과, 농업농촌과), **전북발전연구원**

▢ 발제 및 토론

Ⅱ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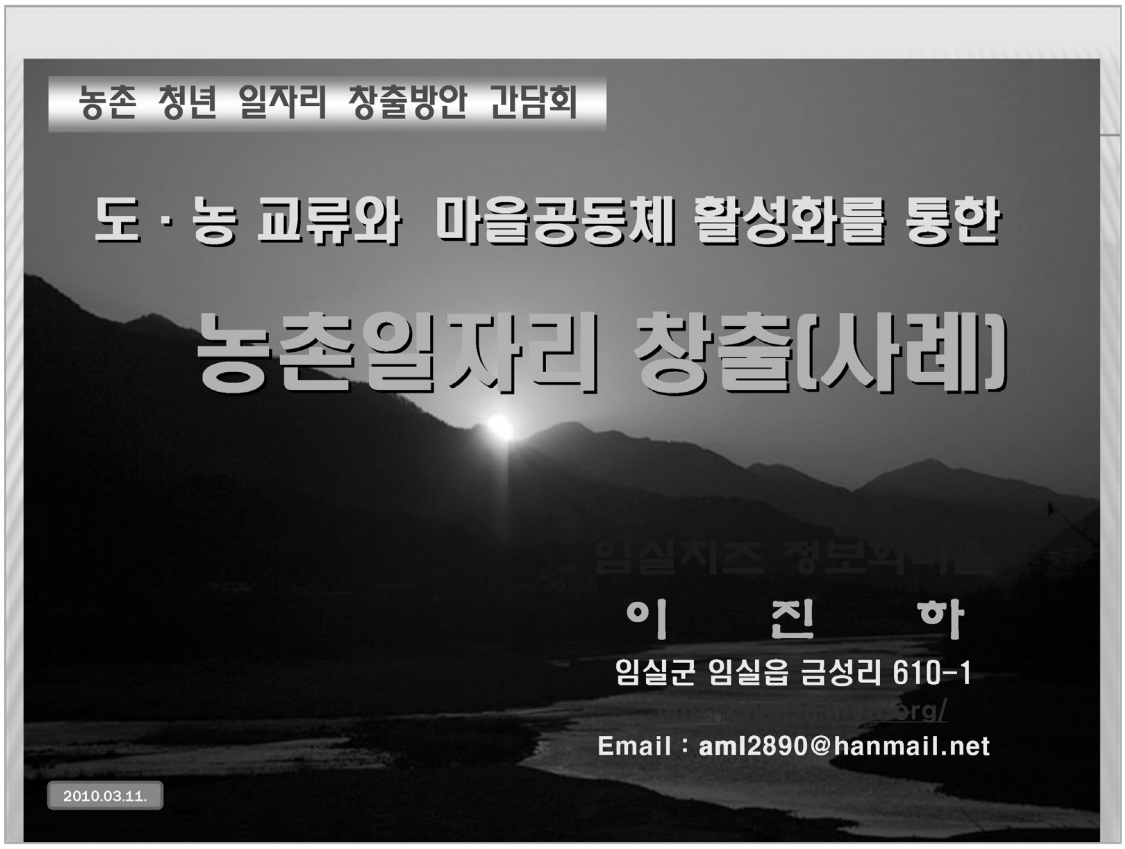
■ 좌장: **황 만 길** (지역농업연구원 원장)

시 간	구 분	내 용
10:00-10:10 (10`)	**개 회**	**개회, 상견례**
10:10-11:10 (60)	**주제발표 1** (20`)	발표자: **이진하** (임실치즈마을) 제 목: **도농교류 마을공동체 활성화 통한 농촌일자리 창출 사례**
	주제발표 2 (20`)	발표자: **이민수** (전북발전연구원) 제 목: **전북 농촌 고용현황·특징과 고용창출 방향**
	주제발표3 (20`)	발표자: **임경수** ((주)이장) 제 목: **지역사회와 사회적기업**
11:10-12:30 (80`)	**종합토론**	**정 승 우** (전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강 승 구** (전북도청 농식품국) **구 자 인** (진안군청 마을만들기팀) **나 영 삼** (완주군청 로컬푸드팀) **서 성 원** (사회적기업지원 전북연구센터)

도농교류 마을공동체 활성화 통한 농촌일자리 창출 사례

1

이진하 (임실치즈마을)



치즈마을 아카데미 / 이진하 - Cheesevil Academy / jinha Lee



1956년	전북 임실 출생
1975년	전주농림고등학교 축산과 졸업
1982년	임실동부신용협동조합 근무
1983년	친환경농업 시작
1984년	덴마크 축산전문과정 연수
1987년	예가원 공동체 조직
1991년	바른농사실천농민회 및 전북살림 조직
1994년	예가원 영농조합법인 설립 (현 대표이사)
1999년	일본 농업경영연구소 연수 퇴비제조기술자 인증
2002년	새농민상 본상 수상 (환경농업분야)
2003년	초대 치즈마을운영위원회 공동위원장 역임
2007년	제3기 치즈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 재	치즈마을 정보화위원장,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강사, (사)지역농업연구원 현장연구위원, 지역리더쉽센터 함께이룸 교육연구위원, (사)한국농촌관광학회 이사, 치즈마을 아카데미 상임고문. GS&J인스튜트티 운영위원, 제로에너지 건축컨설턴트. 전북향토마을만들기 운영위원, 전북발전연구원 자문위원.

삶이 말하는 – 치즈마을 아카데미

1. 치즈마을 의 삶과 역사	삶이 말하는 고맙고/배우고/사랑하고
2. 마을조직과 운영	삶이 말하는 상향식 조직과 민주적 운영
3. 농촌체험의 개발과 실제	위대한 농민의 삶이 농촌다움이며 상품이다.
4. 주민갈등과 해결방안	삶이 말하는 주민갈등의 원인과 처방
5. 성공적인 귀농과 귀촌	귀농학교 출강에서 배운 성공적인 귀농과 귀촌.
6. 자주.자조.자립을 위한 꿈의 프로젝트(마을은행)	삶이 말하는 정신적 자주 · 자조와 경제적 자립으로 협동을 위한 꿈의 프로젝트

3

치즈마을 아카데미 –체험학습

치즈마을 히스토리	지정환 신부님과 심상봉목사님으로 부터 치즈마을 역사와 가꾼 사람들 이야기
3대의 협동이야기	할아버지가 연구하신 협동과 아버지가 실험하신 협동을 손자가 가꿔가는 협동이야기
흙과 식물이야기	살아 숨쉬는 흙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토양실험과 식물이야기
방앗간 교육이야기	우리 아이들의 공부 재미있고 / 즐겁고 / 신바람 나게 하여 이웃에게 봉사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맛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교육철학 이야기

4

공동체란?

공동체(共同體) 또는 커뮤니티(community)는

같은 환경을 공유하는 사회 집단이며,
보통 같은 관심사를 가진다.
인간의 공동체에서는 믿음, 자원, 기호, 필요, 위험 등의 여러 요소들을 공유하며, 참여자의 동질성과 결속성에 영향을 주고 받는다.

서구의 공동체를 뜻하는 커뮤니티(community)는 라틴어로 같음을 뜻하는 communitas에서 왔으며, 이 말은 또한 communis, 즉 같이, 모두에게 공유되는 에서 나온 뜻이다. Communis라는 말은 라틴어 접두사 con- (함께)와 munis (서로 봉사한다는 뜻과 관계 있다)의 합성어이다.

(출처 :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도농 교류란?

이 진 하(정보화위원장)

도시와 농촌이 순환되는 과정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는 자연순환을 실천하는 일

농촌은 - 뿌리의 역할

농촌은 뿌리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농민만의 새로운 가치관을 세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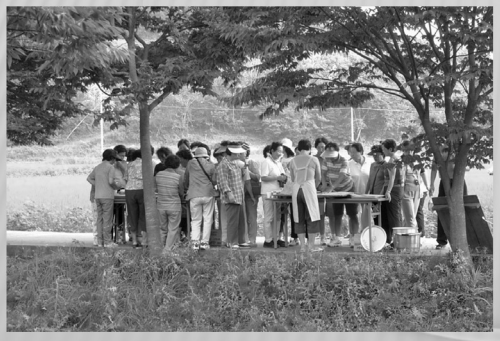
도시는 – 잎, 꽃, 열매의 역할

도시민은 풍성한 잎과
아름다운 꽃과
충실한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이 있다.

6

모든 것이 일자리자원

소비자와의 만남



만남 = 인연

만남 = 인연 = 체험

⇩

무엇을 학습 할 것인가?

1. 농촌다움
2. 나의 삶 (혼)

7

모든 것이 일자리자원

돈까스 식사체험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모든 것을 특색과 연계!

⇩

치즈 돈까스
치즈 삼겹살
치즈 비빔밥
치즈 된장라면, 등

8

모든 것이 일자리자원

체험학습과 마을단합

소 달구지 트렉터 열차

경운기 체험학습

체험진행강사 자격
환갑을 넘기신 분

할아버지의 인정을 체험학습

경운기타기 체험



9

모든 것이 일자리자원

초지 썰매체험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자

똥의 소중함을 학습한다

자연순환의 원리를

강아지 똥 이야기

10

모든 것이 일자리자원

안전성도 가까운 곳에

벗짚의 소중함을 학습한다

⇩

자연은 좋고 나쁨도 없다

쓰임새에 따라 모습만 달리한다

초지 눈썰매체험



11

모든 것이 일자리자원

동물도 나와 같은 생명

생명의 소중함을 학습한다

⇩

내 생명을 키워주신 부모님을

송아지는 태어나자 마자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가?

송아지 우유주기체험



12

모든 것이 일자리자원

치즈 만들기 체험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하다

협동의 소중함을 학습한다

더불어 사는 아름다움

이웃과의 나눔이
협동이며 사랑이다!

13

옛날에는 어떻게 …

문명의 발전을 학습한다

자연의 소중함과

선조들의 지혜를!

벼짚 가공 체험



14

모든 것이 일자리자원

산양체험과 비누 만들기



임실치즈의 출발 – 산양

역사에서 희망을 학습한다

1964년 산양 2마리가

한국최초 치즈를 만든다!

15

연도별 체험수와 수입

(단위: 명 / 천원)

구 분		월 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6년	체험객수	155	109	157	438	738	519	895	1,474	1,642	1,766	1,466	989	10,348
	마을수입액	3,410	2,396	3,454	9,636	16,236	12,578	19,930	35,348	36,944	39,632	32,432	21,758	233,756
07년	체험객수	1,555	1,486	1,664	3,554	3,467	2,919	2,258	4,439	1,687	4,187	2,305	1,381	30,902
	마을수입액	36,854	35,218	39,437	84,230	82,168	69,180	53,515	105,204	39,981	99,232	54,629	22,096	721,744
08년	체험객수	1,797	1,194	1,190	3,792	4,595	2,697	2,017	3,608	2,433	4,713	2,585	1,455	32,076
	마을수입액	34,143	22,686	22,610	72,048	87,305	51,243	38,323	68,552	46,227	89,547	49,115	27,645	609,444
09년	체험객수	1,646	1,737	1,238	4,133	5,464	3,547	3,667	6,300	1,485	3,511	1,931	2,197	36,668
	매출수입액	31,274	33,003	23,522	78,527	103,816	67,393	69,673	119,700	28,215	66,709	36,689	41,743	696,692
10년	체험객수	3,147												3,147
	매출수입액	59,793												59,793

16

2009년 월별 판매실적

【특산물 판매실적】

1월	11,421,500원
2월	13,380,000원
3월	14,148,500원
4월	18,014,500원
5월	21,539,000원
6월	20,084,000원
7월	24,991,000원
8월	30,307,000원
9월	22,796,250원
10월	19,376,430원
11월	23,494,000원
12월	16,492,500원
계	236,107,680원

【체험관광 판매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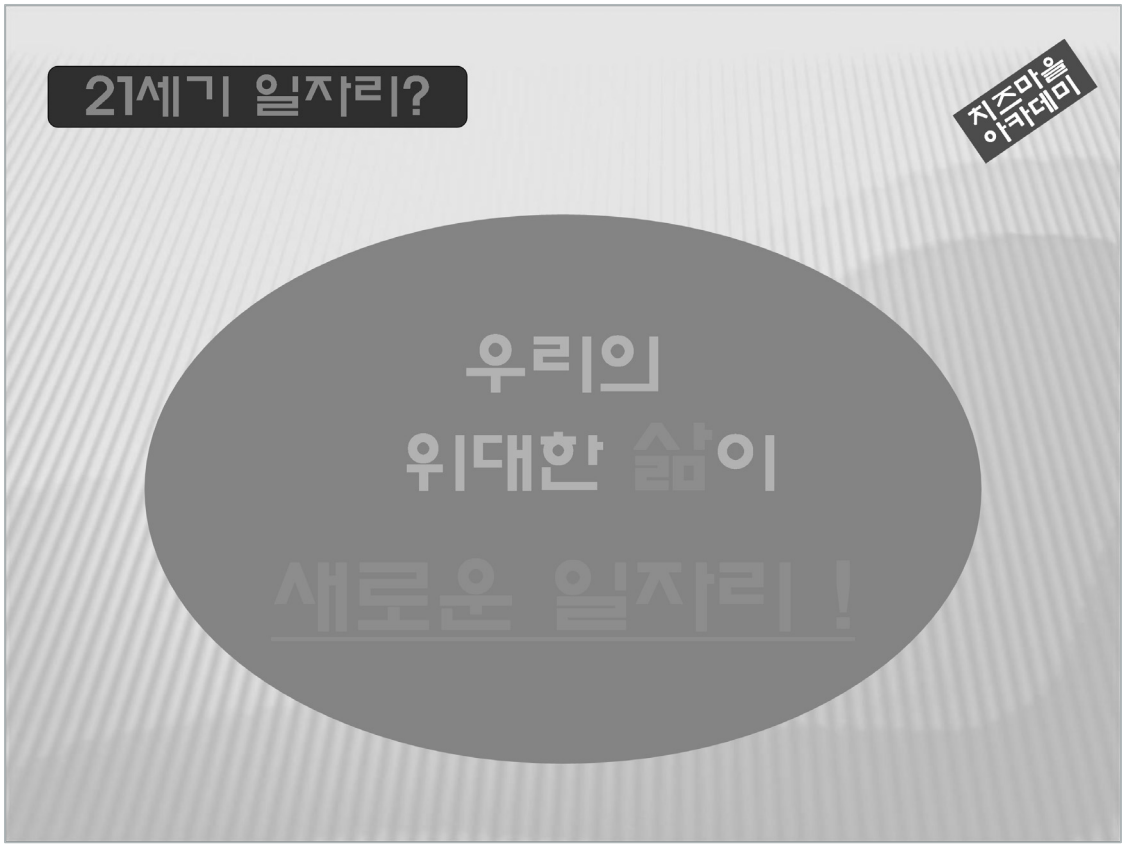
1월	31,274,000원
2월	33,003,000원
3월	23,522,000원
4월	78,527,000원
5월	103,816,000원
6월	67,393,000원
7월	69,673,000원
8월	119,700,000원
9월	28,215,000원
10월	66,709,000원
11월	36,689,000원
12월	41,743,000원
계	696,69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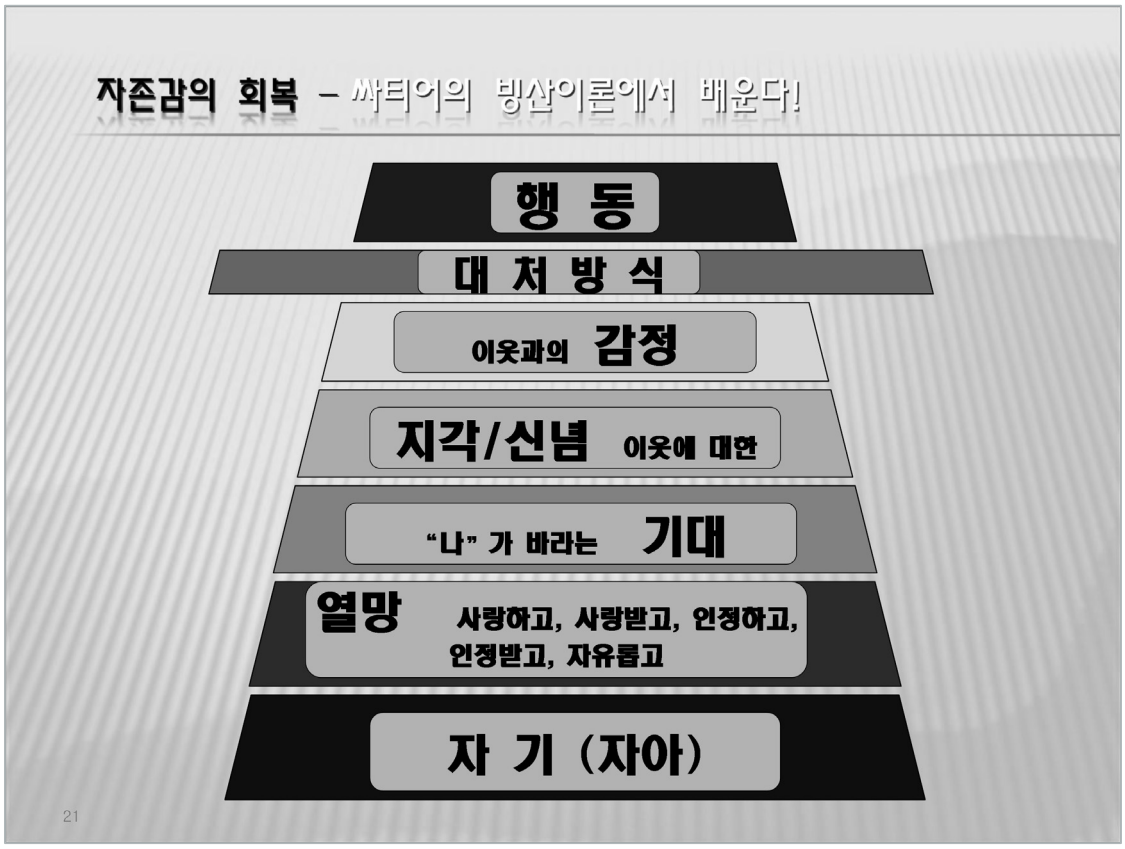
2009년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분배현황 (제4기 1차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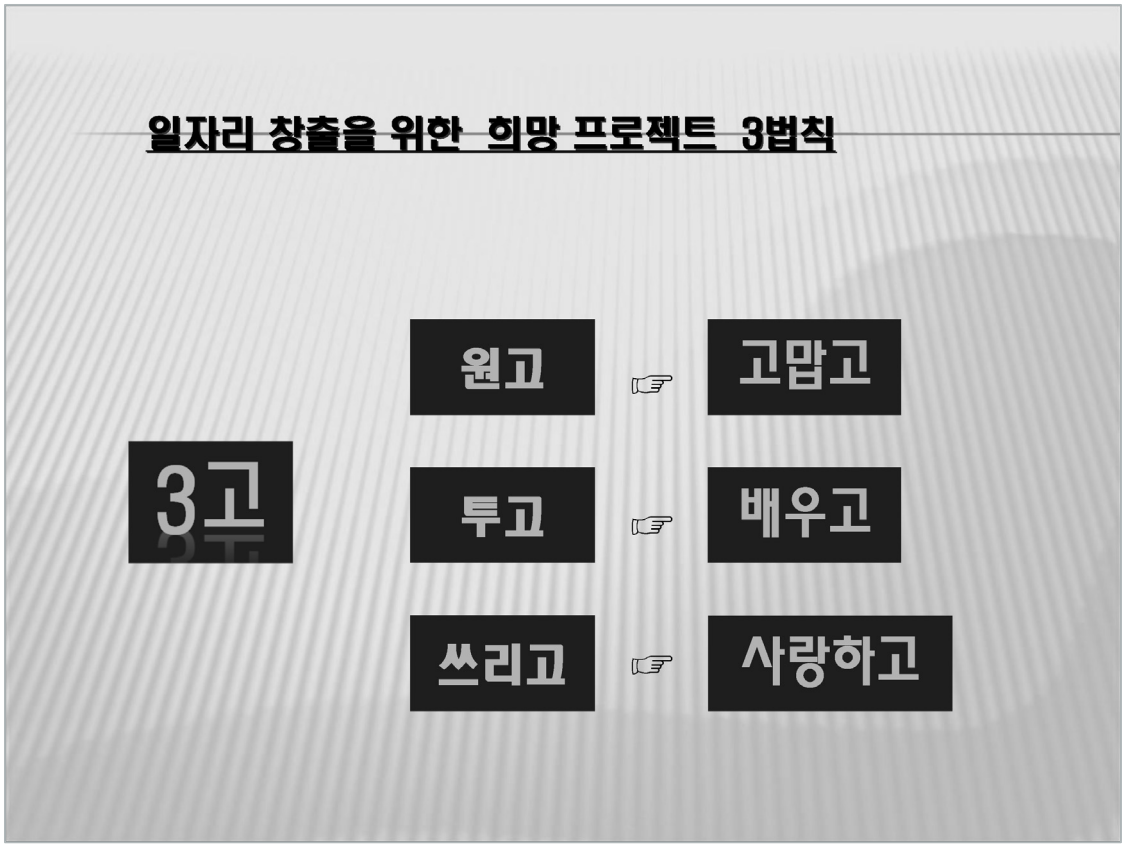
사 업 명	매 출 액	농가 지급액	지급액/매출	대상 농가수
개 별 사 업	172,487,500	154,261,978	89.4%	23
치 즈 체 험	342,510,000	136,210,379	39.8%	22
식 당	158,670,000	59,266,950	37.4%	15
판 매 장	236,100,750	174,593,949	73,9%	14
사 무 실		50,279,205		24
합 계	919,988,250	574,612,461	62.5%	54농가 / 9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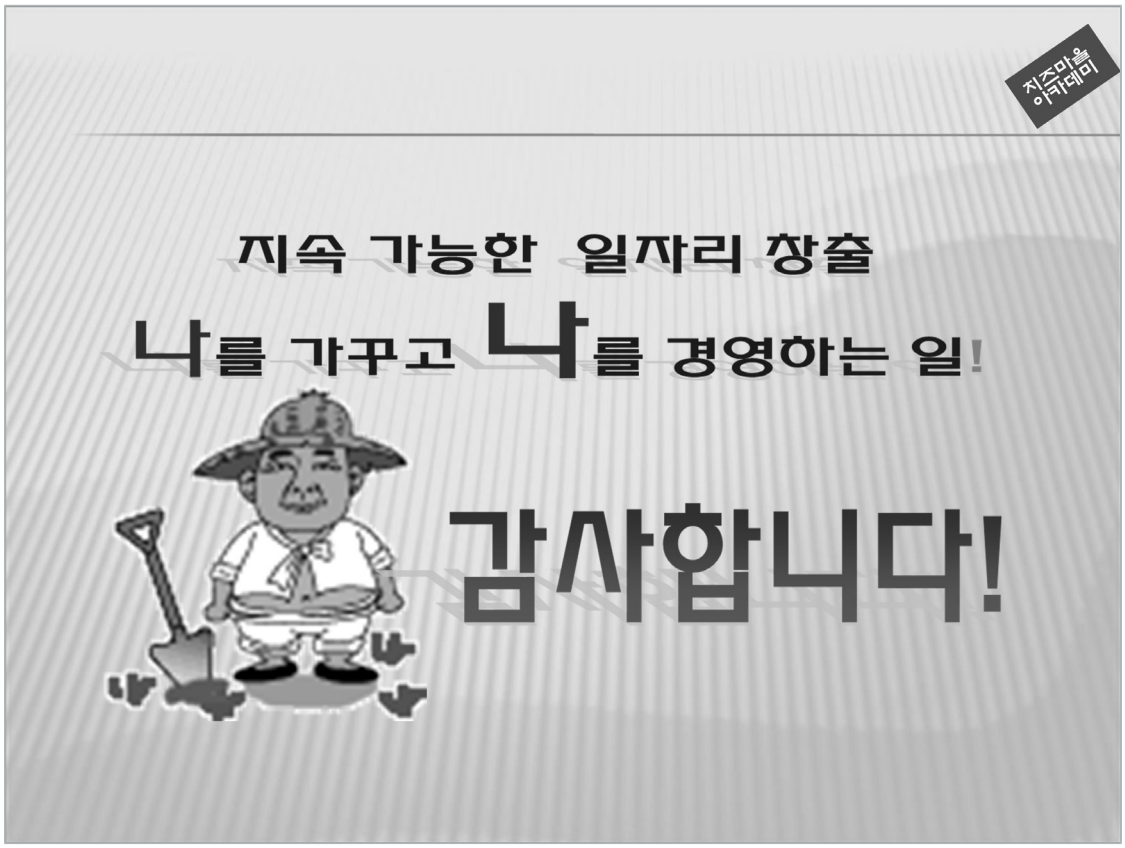
2009년 결산내역 (제4기 1차년도)

과 목	금 액	금 액
08년 미처분 잉여금	64,363,402	08년 / 148,546,354 09년 / 91,880,130 합 계 / 240,444,484 건물 / 75,918,993 비품 / 36,674,559
09년 잉여금	63,487,530	
08년/09년 처분가능한 잉여금	127,850,932	
마을발전기금(고정자산상각 적립금)		10,000,000
(마을지발간 적립금)		14,404,112
(아동복지 지원금)		5,000,000
(노인복지 지원금)		4,000,000
(마을경관 조성기금)		2,000,000
(인재육성 장학기금)		5,000,000
(중장기 마을발전기금)		5,000,000
(지역사회 기부금)		5,000,000
(마을불용자산처분적립금)		30,000,000
(사업준비금)		47,446,820




자존감의 회복 – 싸티어의 빙산이론에서 배운다!
행 동
대 처 방 식
이웃과의 감정
지각/신념 이웃에 대한
"나" 가 바라는 기대
열망 사랑하고, 사랑받고, 인정하고, 인정받고, 자유롭고
자 기 (자아)
21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3법칙
3고
원고
☞
고맙고
투고
☞
배우고
쓰리고
☞
사랑하고


지속마을
아카데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나를 가꾸고 나를 경영하는 일!
감사합니다!

전북 농촌 고용현황 · 특징과 고용창출 방향

2

이민수 (전북발전연구원)

Ⅰ. 서 론

농촌 노동시장은 도시 노동시장과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박성재 외, 2007; 이영대 · 정명채, 1990; 이용헌, 1991; 이민수 & 박덕병, 2006; Green & Hardill, 2003; Errington, A. 1998; Vidal, C. 2001; Kinsella, J. et al. 2000; Benjamin, C. 1994)

- 경제활동참여율이 도시에 비해 낮음, 특히 여성의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 노동인구의 연령이 도시에 비해 높음
- 실업률이 도시에 비해 높지는 않지만, 계량화하기 어려운 불완전고용(underemployment)이 존재
- 파트타임과 계절적인 일시적 고용이 많음
- 상대적으로 복합취업(pluriactivity)의 비율이 높음
- 농촌지역은 자가고용(self employment)의 비율이 높음
-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혁신적이고 유능한 인적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선진국의 경우 역도시화 현상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도시민이 도시근교 농촌에 거주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지닌 도시근교로 옮겨가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시 근교 농촌지역은 안정적인 새로운 일자리가 다수 창출됨
- 국내의 경우는 도시근교 농촌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 인력들의 다수가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농촌의 생활서비스분야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냄
- 농촌고용을 위해 유치되는 기업은 대부분 저임금에 기반하여 경쟁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농촌 노동력은 숙련된 훈련을 받을 기회가 사전적으로 차단됨
- 많은 농촌지역은 기본적인 서비스와 인프라의 부족으로 기업창업활동에 불리함
- 최근 농촌지역은 농촌관광, 체험, 사회서비스 등에서 새로운 고용기회가 생겨나고 있으며, 특히 농촌관광은 타 활동에 비해 지역경제승수효과가 높음

도시와 차별화된 특성을 기반으로 농촌고용 현황이 분석되어야 농촌지역에 적합한 고용창출 정책 수립이 가능함.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촌을 정확히 정의하고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

- 도시와 농촌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읍/면과 동으로 구분
- 농촌지역을 구분하는 데는 현재 일치된 기준이 없음. 본 연구는 농촌지역을 엄밀히 구분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으므로, 전북 농촌을 동부권지역(무주, 장수, 진안, 임실, 순창, 남원)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

Ⅱ. 농촌지역과 일자리 창출

1. 농업(농식품)의 고용유발 효과[1)]

1) 취업유발계수

2007년 전산업 평균 취업유발계수[2)]는 13.9명으로, 그 중 농림어업이 46.8명으로 투자대비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큼

- 서비스업 18.1명, 건설업 16.8명, 광업 10.3명, 제조업 9.2명, 전력·가스·수도 3.5명 순
- 서비스업: 음식 및 숙박업이 36.5명, 도소매업이 29.5명 순
- 제조업: 음식료품이 23.0명, 인쇄 및 복제업이 19.4명 순

농림수산식품분야 취업유발계수는 타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감소하는 추세임

- 농림어업: '00년 62.9명 → '05년 51.1 → '07년 46.8
- 음식료품제조: '00년 32.3명 → '05년 24.7 → '07년 23.0
- 음식·숙박업: '00년 43.0명 → '05년 37.8 → '07년 36.5
- 전산업: '00년 18.1명 → '05년 14.7명 → '07년 13.9명

이 같은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농식품부문의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가 빠르며, 투자액 대비 고용유발효과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줌

2) 전후방 관련산업 및 서비스 부문 고용

농림어업 생산(1차산업)과 전방의 식품제조업 및 기타 제조업(2차산업) 고용은 감소추세이지만, 후방의 농자재산업과 특히 전방 관련서비스부문 고용은 증가추세로, 농식품부문의 일자리창출에서 농자재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1) '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2)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

〈표〉 농림어업 부문별 고용자수

(단위: 천 명)

구 분	2000	2008
농림어업(생산, 1차산업)	2,243	1,686
생산서비스부문	33	41
전방관련 가공·제조업(식품제외)(2차)	149	143
식품제조업(2차)	225	217
농자재부문(2차)	110	**169**
후방관련 서비스부문	24	23
전방관련 서비스부문	1,938	**2,077**
계	**4,723**	**4,356**

자료: 농촌경제연구원(2009)

- 후방관련 서비스: 농림수산업 투입재(비료, 농약, 농기계, 하천사방, 선박 등)의 물류 및 도소매업, 생산 및 경영지원 컨설팅 및 R&D, 인력지원 및 농지거래서비스, 재해보험 등
- 전방관련 서비스: 농림수산업 산출물의 물류 및 도소매업, 검역 등
  · 식품관련 전후방관련 서비스: 물류 및 도소매업, 검역, 음식점, 외식업 등

2. 일자리 창출에서의 농촌지역의 새로운 가능성 – 선진국 사례

최근 유럽지역의 고용추세를 보면, 새로운 고용기회는 1980년 이후로는 농촌성(rurality)이나 도시화(urbanization)의 정도와는 연관되어 있지 않음(OECD, 1996). 중간지대 농촌지역과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산업고용에서 증가를 보여주었음. EU의 경우 1980년에서 1993년까지 농촌지역에서는 서비스 부문에서 0.8% 증가하였으며, 많은 국가에서 고용 증가율은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Terluinida, 2001).

농촌지역의 인구성장은 농업부문에서의 고용추세는 감소한 반면에 주로 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기회 증가에 의해 설명됨. EU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사회서비스(community services)가 농촌지역의 선도적인 고용창출 분야로, 농촌고용의 4분의 1이상을 차지. 다음으로는 제조업(25% 이하), 기타서비스(호텔, 식당 등)가 20%, 건축이나 개인 사업이 9% 정도를 차지(Terluinida, 2001).

농촌지역에 새로운 대두되는 고용분야를 나열하면 아래와 같음(Copus, A. et al., 2006).

- 농촌관광(agro-tourism)
- 재생에너지
- 문화

- 자연/경관관리
- 고품질농산물/유기농산물
- 정보기술서비스
- 공공 서비스(보건, 사회서비스 등)

1) 농촌관광

농촌관광은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농촌지역의 개발에 가장 큰 승수효과를 가져옴(European Commission 1999). 승수효과로 인해 농촌관광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 수요는 농촌경제의 모든 부문에 걸쳐 간접적인 효과를 유도(Archer 1982; Vaughan, Farr and Slee 2000). 특히 전통적으로 농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농산물 부문은 농촌관광개발에 의해 가장 많은 간접적 영향을 받음(Fleischer and Tchetchik 2005).

EU지역에서 농촌관광으로 인한 농가소득 영향을 보면, 국가에 따라 다양한 결과(Agra informa, 2005)

- 동유럽의 신규 가입국들은 거의 변화가 없이 정체
-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농촌관광활동을 통해 고용과 농가소득이 의미있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는 매년 약 3%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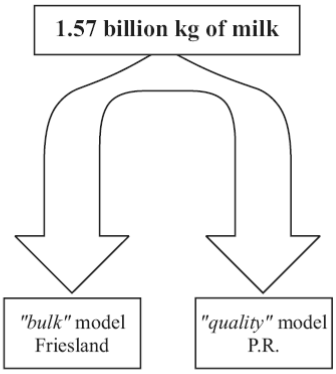
2) 고품질 유기농산물

유럽의 사례 연구에 의하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방식은 상업화된 대규모 농업에 비해 훨씬 많은 고용을 창출. 이탈리아 에밀리아 지방의 'Parmigiano Reggiano 치즈' 사례에 의하면 Parmigiano Reggiano 치즈에 우유를 공급하는 낙농가는 동일한 소득을 얻으면서도 일반 낙농가에 비해 2배 이상의 고용을 창출(De Roest, 2000; De Roest & Menghi, 2000, p.445).

이탈리아의 Parmigiano Reggiano 지역과 네덜란드의 Friesland 지역을 비교한 연구결과를 보면, 동일한 우유를 생산하지만 이탈리아의 경우는 기존의 대량 생산방식인 네덜란드 보다 우유 생산농가 단위에서 2.5배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면서도 노동력 1단위당 동일한 소득을 획득.

그리고 이 같은 방식의 고품질 농업은 지역 내에서 농촌개발의 타 영역과 연결되어 훨씬 많은 시너지효과를 창출함. 즉 고품질 농업 접근은 직접 판매, 농업관광, 농가단위 가공 등과 연결되면서 지역 내 더 많은 고용을 창출(Van der Ploeg et al.,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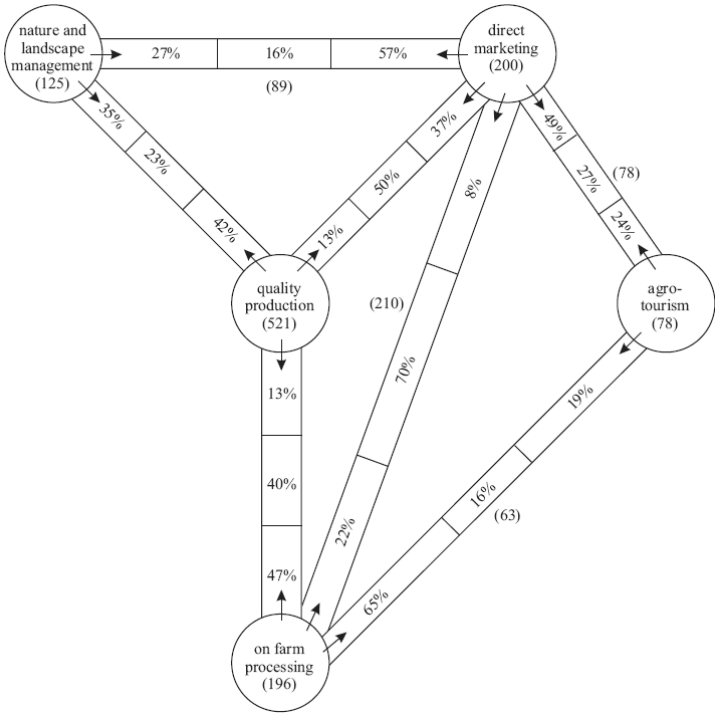
- 유럽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Oostindie, Van der Ploeg & Renting, 2002), 경관관리 농가의 42%는 고품질 농업으로 촉발되었으며, 경관관리 농가의 35%는 고품질 농업에 참여



numbers of farms	5,000	8,400
AWU/farm	1.7	2.5
total AWU	8,500	21,000
income/AWU	equal	

(자료: Van der Ploeg et al., 2002, p.208)

〈그림〉 Friesland와 에밀리아 Romagna 지역 비교



(자료: Oostindie et al., 2002)

〈그림〉 고품질농업의 연계효과

3) 창업

(1) 농촌이주자와 창업

- Bosworth(2006)
  - 초소규모사업체(microbusiness)의 절반은 농촌이주자가 창업
  - 농촌지역 일자리의 10%는 농촌이주자에 의한 초소규모사업체
  - 농촌이주 초소규모사업체는 평균적으로 2개의 추가적인 일자리 생산
  - 농촌이주 초소규모사업체는 지역업체에 비해 더 성장지향적
  - 농촌이주자는 폭 넓은 비즈니스 네트웍 확보, 매우 많은 가치있는 지역 관계 개발, 지역경제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 많은 공헌
  - 농촌경제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감소된 농가수입 보전, 농업관련일자리 보전
- Stockdale & Findlay(2004)
  - 자가고용 농촌이주자에 대한 연구
  - 평균 2.4 풀타임 고용 창출
  - 이주자의 약 1/4이 농촌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시작
  - 고용은 이주의 가장 중요한 동기
- Halfacree(1994)
  - 고용 관련 요인이 이주에 중요한 영향
- Raley & Moxey(2000)
  - 소규모사업체 보유한 농촌이주민의 40%는 새로운 사업시작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
- Keeble et al(1992)
  - 농촌 비즈니스 창업자의 66%는 이주민에 의해 창업, 지역주민은 34%

(2) 농촌 창업 정책

- EU의 경우 농촌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을 농촌개발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
  - '제3차 농촌개발계획(2007~2013)'의 3대 핵심전략 중 '경제활동 다각화 및 삶의 질 향상' 전략은 농촌지역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
  - 구체적인 과제로 농가의 비농업 부문 경제활동 겸업 촉진, 농촌지역 창업 지원, 관광부문 활성화 등을 설정
- 영국: 농촌개발정책(2000-2006) 기간 동안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농촌사업체지원사업(Rural Enterprise Scheme)' 실시
  - 투입예산: 1억 4,500만£(약 2,617억 원)

- 실적/성과
  · 3,000개의 프로젝트 지원
  · 1만 4,500개의 일자리 창출 또는 유지
  · 1,200개의 농가 농외소득원 창출 지원
  · 3,800건의 고품질 농산물 마케팅 지원
  · 548개의 마을 단위 사업 자금 지원
  · 3,500개의 농촌관광/수공예 창업 지원

4) 지역사회 서비스(보건, 공공서비스 등)

▪ EU 사례(Terluinida, 2001)

- 농촌지역의 고용증가는 많은 부분 공공영역의 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기회 증가에 의해 설명됨. EU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사회서비스(community services)가 농촌지역의 선도적인 고용창출 분야로, 농촌고용의 4분의 1이상을 차지. 다음으로는 제조업(25% 이하), 기타서비스(호텔, 식당 등)가 20%, 건축이나 개인 사업이 9% 정도를 차지(Terluinida, 2001).

▪ 캐나다 Saskatchewan 사례(Diane J. F., et al., 2006)

- 공공부문은 고용의 약 23% 차지
- 고용기회의 46%가 공공부문에서 발생
- 직접 고용 55,000명, 간접 고용 효과 21,762명
- 공공부문 종사자 직접소득 1,856백만달러, 간접소득 823백만달러
- 공공부문 종사자는 고숙련기술 보유하고 있으며, 안정적이면서 중간이상의 소득 획득
- 공공부문은 특히 높은 임금 일자리가 없는 농촌 여성에게 특히 중요
-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 외에도 공공부문 종사자의 기술과 네트워크는 농촌지역에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가져옴

Ⅲ. 전북 농촌고용 현황 및 특징

1. 농업부문 현황

1) 농업부문 고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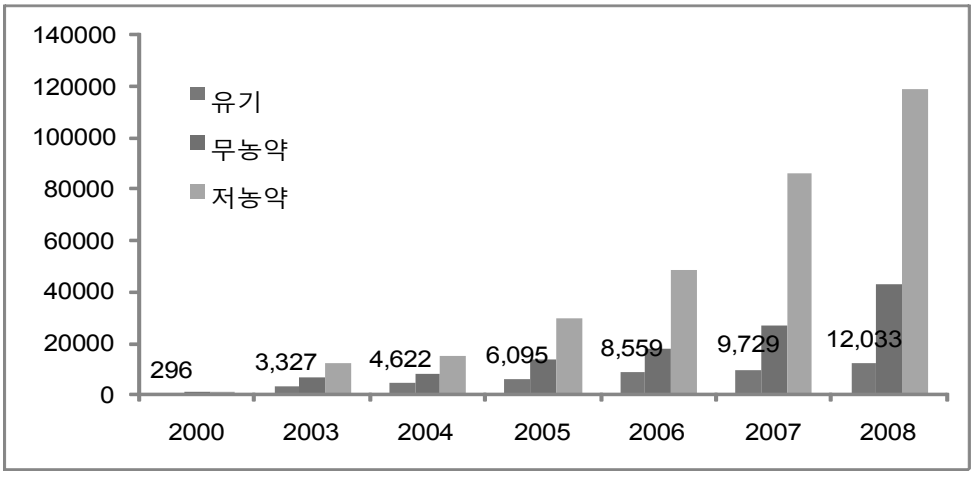
- 2008년 현재 농어촌지역 농업경제활동인구: 1,686천명
  - 2000~2008년간 농업경제활동인구는 557천명 감소(-24.8%)
- 농가인구는 2008년 현재 3,187천명
  - 2000~2008년간 농가인구는 년간 3-5%씩 지속적으로 감소
  - 전국에 비해 전북과 동부권이 좀 더 감소
  · 전국 20.9% 감소 < 전북 25.4% < 동부권 28.3%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증감량	증가율
경제활동인구	농업(전국)	2,243	2,148	2,069	1,950	1,825	1,815	1,785	1,726	1,686	-557	-24.8%
농가인구	전국	4,031	3,933	3,591	3,530	3,415	3,434	3,304	3,274	3,187	-844	-20.9%
	전북	389	370	334	327	316	319	307	300	290	-99	-25.4%
	동부권	113	107	97	97	94	91	85	83	81	-32	-28.3%

자료: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농식품부)

2) 고품질(친환경) 농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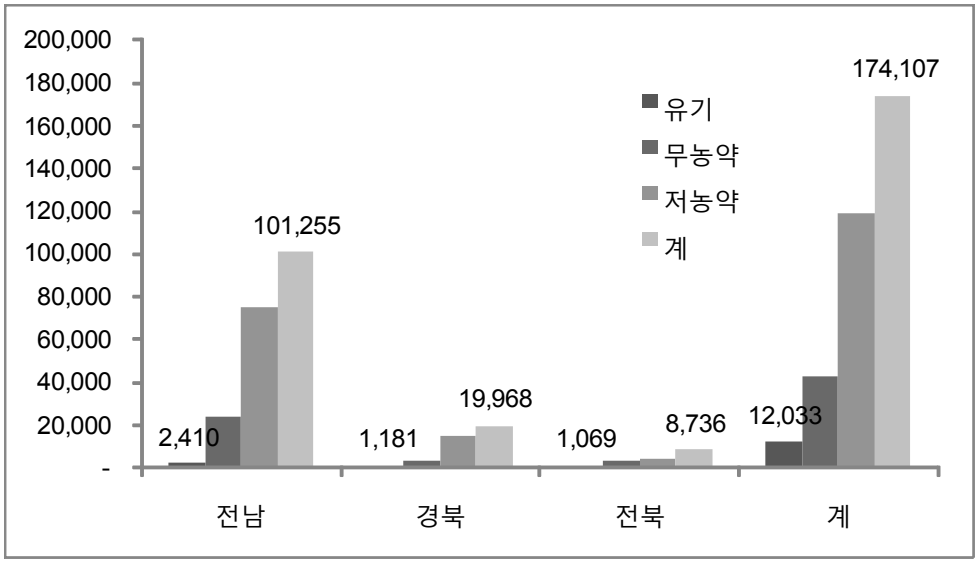
- 친환경 농업면적은 2000년 이후 높은 성장세
  - 유기농의 경우 2008년 면적은 2001년에 비해 26.7배 성장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그림〉 친환경 면적 변화추이(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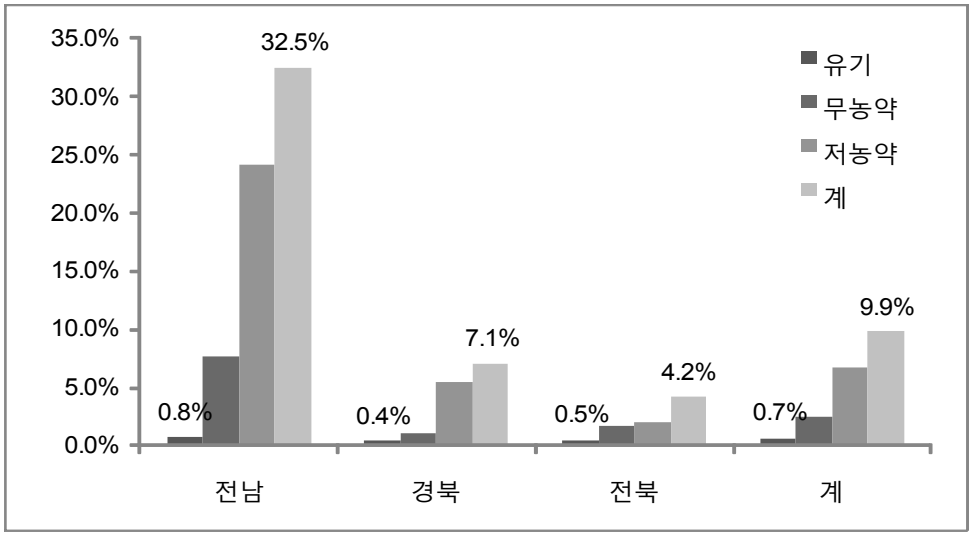
- 지역별 친환경 농업격차 심화
  - 전남이 전체의 58.2% 차지 > 경북 11.5% > 경남 6.7% > 충남 5.3% 순
  - 전북은 국내 전체면적의 5.0% 수준
- 전북의 경우 친환경면적은 경북에 비해 낮지만, 유기농 면적의 경우는 경북과 비슷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그림〉 지역별 친환경농업 면적(ha)

- 친환경 경지면적 비중도 지역별 격차가 심함
  - 전남 32.5% > 경북 7.1 > 경남 7.0 > 강원 5.9 > 전북 > 4.2 > 제주 4.0
- 유기농 면적비중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그림〉 지역별 친환경 경지면적 비중(%)

2. 비농업부문 현황

- 2000~2008년간 농촌지역의 비농업부문 종사자수는 18.2% 증가
- 전북 농촌지역의 경우는 비농업부문 종사자수는 7.0% 증가
- 동부권의 경우는 1.3% 감소

〈표〉 농어촌지역 비농업부문 종사자수 변화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증감율
전국	2,495	2,501	2,544	2,620	2,698	2,582	2,726	2,885	2,948	18.2%
전북	132	127	129	130	131	132	135	138	141	7.0%
동부권	39	38	39	39	38	37	38	37	38	-1.3%

주: 읍 · 면 지역을 농어촌 지역으로 정의함
자료: 사업체기초통계(통계청)

- 전국 농촌지역에서 고용이 현저하게 준 분야는 금융/보험업
- 전국 농촌지역에서 숙박/음식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용이 현저하게 증가
  - 특히 보건/사회복지분야(78.9%), 사업서비스업(62.7%)에서 현저하게 증가
- 전북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이 다소 증가했으나, 전국 농촌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적음
- 전북과 동부권의 경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는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도소매업: 전국 2.6% 감소 < 전북 19.5% 감소 < 동부권 28.1% 감소
  - 숙박/음식업: 전국 5.0% 증가 < 전북 6.3% 감소 < 동부권 15.0% 감소
- 전북/동부권의 경우 사업서비스업과 보건/사회복지 분야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큼
  - 사업서비스업: 전국 62.7% 증가 < 동부권 175.1% < 전북 316%
  - 보건/사회복지: 전국 78.9% 증가 < 동부권 89.5% < 전북 106.7%
- 이 같은 현상은 상대적으로 전북과 동부권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생활서비스분야(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의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어 들었음을 보여줌
- 이와 함께 보건/사회복지에 대한 종사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
  - 이는 농어촌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보건, 의료, 복지분야 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농어촌 복지관련 정책의 확대에 따른 서비스 공급 증가를 반영한 것임

〈표〉 산업대분류별 농촌지역 종사자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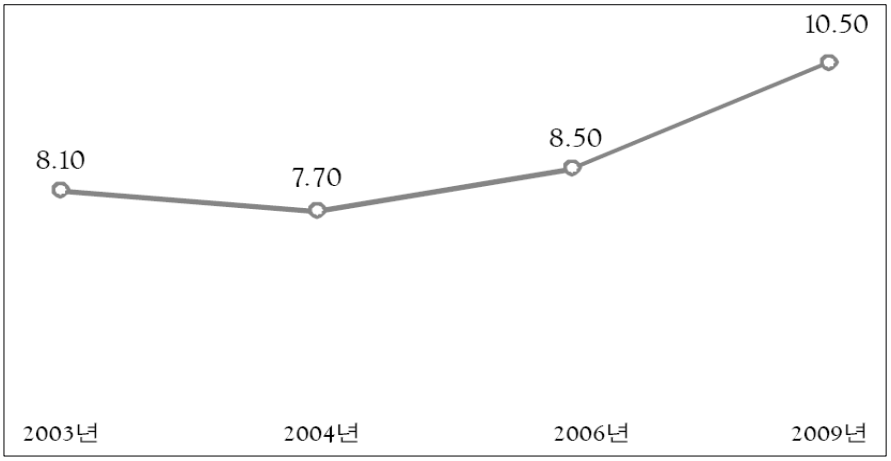
구분	2000			2008			증감율		
	전국	전북	동부권	전국	전북	동부권	전국	전북	동부권
제조업	919,184	33,893	5,946	1,136,346	38,110	5,540	23.6%	**12.4%**	**-6.8%**
건설업	99,294	5,458	1,691	134,158	5,979	2,350	35.1%	**9.5%**	39.0%
도소매업	328,943	21,487	6,753	320,514	17,307	4,857	-2.6%	**-19.5%**	**-28.1%**
운수업	95,800	5,502	1,360	127,760	6,500	1,173	33.4%	18.1%	-13.8%
숙박/음식업	302,542	16,553	6,098	317,816	15,517	5,182	5.0%	**-6.3%**	**-15.0%**
금융/보험업	76,175	5,003	1,854	59,844	4,009	1,568	-21.4%	-19.9%	-15.4%
부동산/임대업	28,491	1,054	336	37,434	1,251	491	31.4%	18.7%	46.1%
사업서비스업	36,973	893	209	60,148	3,715	575	62.7%	***316.0%***	***175.1%***
공공행정	118,143	9,850	4,798	128,201	10,753	4,959	8.5%	9.2%	3.4%
교육서비스	172,456	12,793	3,450	210,818	13,113	3,799	22.2%	2.5%	10.1%
보건/사회복지	74,790	4,733	1,614	133,780	9,783	3,059	78.9%	***106.7%***	***89.5%***
오락/문화/스포츠	48,560	2,257	825	67,231	3,062	1,034	38.4%	35.7%	25.3%
기타공공/개인서비스	139,067	9,008	2,755	132,450	7,590	2,330	-4.8%	-15.7%	-15.4%

주: 9차 표준산업분류코드 개정(2007년)에 기준하여 2000년 산업분류코드 재조정
자료: 사업체기초통계(통계청)

3. 농촌관광 현황

- 2000년 이후 정부는 경제적으로 침체된 농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촌관광 육성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사용
- 이에 따라 현재 정부의 지원과 투자를 기반으로 한 농촌관광은 농촌지역에서 주요 경제활동의 하나가 되고 있음
- 현재 농촌관광을 통해 상당히 많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창출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는 없는 상태
- 농촌진흥청이 격년제로 실시한 대도시 도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농촌관광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농촌이 가지고 있는 쾌적한 환경 등과 같은 어메니티와 문화체험을 즐기기 위하여 농촌관광을 하는 도시민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03년 8.1%, 2004년 7.7%, 2006년 8.5%, 2009년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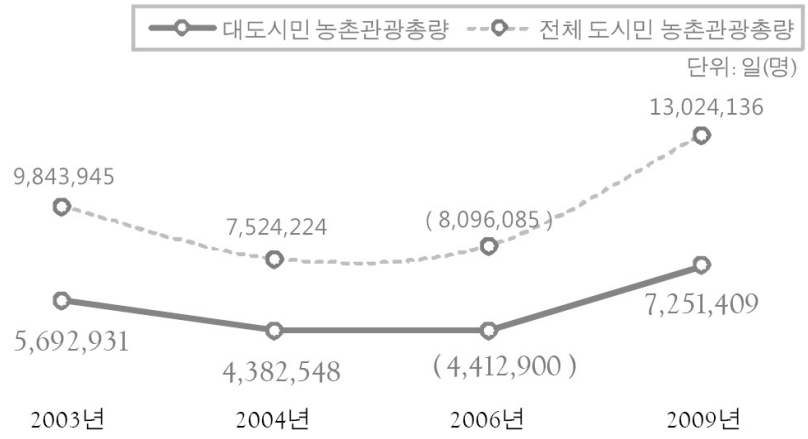


주: 농촌관광경험률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농촌관광을 한 경우
자료: 농촌관광실태조사(농촌진흥청)

〈그림〉 농촌관광 경험율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정해보면 2009년 현재 지난 1년간 농촌관광을 경험한 도시민은 약 187만명

  - 이들의 대도시민 농촌관광 총량은 연인원 725만명(경험자수 * 경험회수 * 체류일수)
  - 전체 도시민 농촌관광총량은 연인원 1,302만명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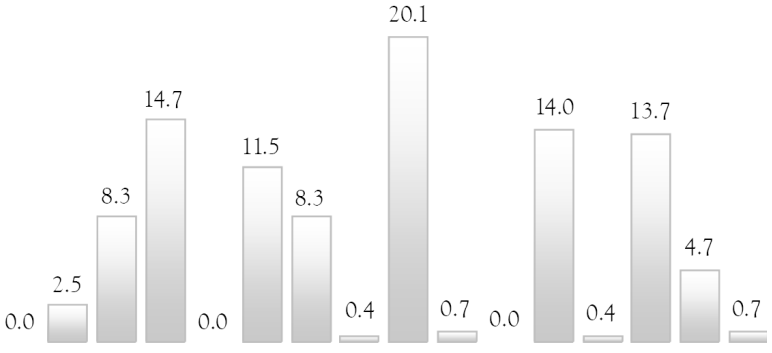


농촌관광				
경험횟수	2,442,284회(명)	2,511,737회(명)	(2,529,132회(명))	4,008,764회(명)
경험자 수	1,384,534명	1,333,819명	1,482,595명	1,870,757명

주: 2006년에는 경험일수, 체류일수가 조사되지 않아 2004년 기준으로 총량 추정
자료: 농촌관광실태(농촌진흥청)

〈그림〉 농촌관광총량

- 농촌관광객의 전북지역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2006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에는 2006년(9.4%)에 비해 약 4.7% 감소
- 농촌관광점유율은 경북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경남, 충남, 충북이 소폭 상승하였음
  - 경북의 경우 경북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경북이 다양한 판촉활동을 수행하였기 때문
- 전북의 경우도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숙박시설 육성과 함께 지역차원의 홍보전략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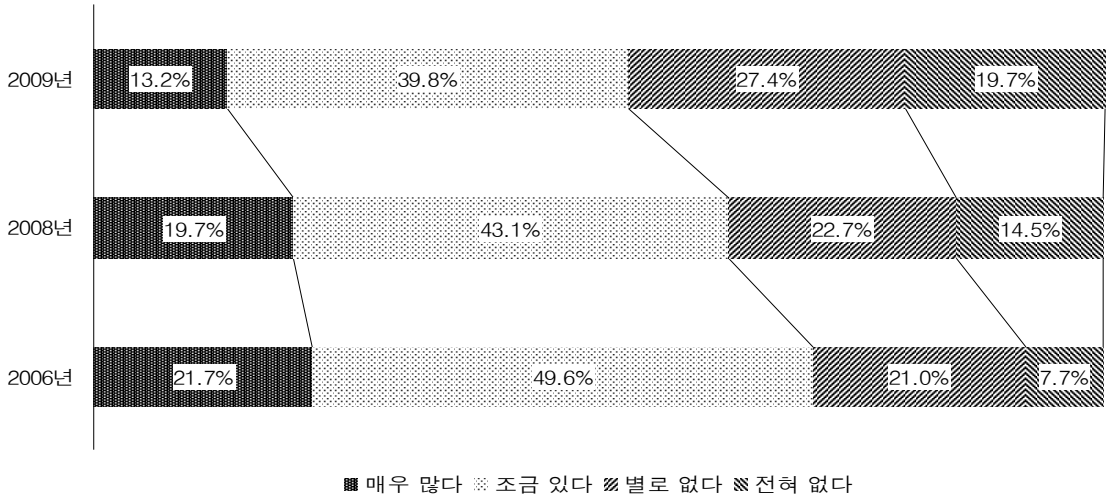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대구	경북	울산	부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
2006	0.0	0.0	12.9	24.7	0.0	7.1	4.7	0.0	8.2	0.0	0.0	11.8	0.0	14.1	9.4	0.0
2004	0.0	1.0	26.3	13.1	1.0	10.1	4.0	2.0	13.1	0.0	0.0	10.1	0.0	10.1	6.1	3.0
2003	0.5	1.5	17.2	13.1	2.0	5.4	6.4	3.0	11.8	0.0	2.5	12.3	0.0	10.8	1.0	2.0

자료: 농촌관광실태(농촌진흥청)

〈그림〉 지역별 농촌관광 점유율

4. 귀농귀촌 현황

-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최근의 사회현상을 농어촌지역 노동력 공급과 지역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09년 현재 전체 도시민 중 귀농·귀촌 의향자의 비율은 5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 전체 도시민 중 구체적인 귀농·귀촌 준비를 시작한 비율은 약 12%



〈그림〉 도시민의 귀농 의향

- 귀농은 경기위기와 밀접하게 관련
  - 귀농 농가 수는 IMF 직후 연 6천여 가구 이상 급증하다가 경기가 회복되는 200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07~2008년 전체 귀농 가구 중 전북도의 비중은 약 18.5% 차지

〈표〉 연도별 귀농현황

구 분	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전국	23,113	6,409	4,118	1,154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전북	3,116	791	456	166	127	90	145	166	73	250	467	385
(%)	(13.5)	(12.3)	(11.1)	(14.4)	(14.4)	(11.7)	(16.4)	(12.7)	(5.9)	(14.3)	(19.6)	(17.3)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2009), 내부자료.

- 귀농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표 3-4), 전체적으로는 30대가 가장 많았으나, 2003년 이후 40대와 50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귀농자들의 귀농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줌
- 이와 함께 60대 이상의 귀농자의 구성비율도 점차 증가

〈표〉 연도별 귀농인구의 연령별 분포

구분	계(%)	'90~'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30,299 (100%)	7,186	6,409	4,118	1,154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29이하	2,105 (6.9)	473	809	361	65	38	62	64	34	54	70	44	31
30~39	11,022 (36.4)	2,836	3,222	2,077	515	316	258	239	243	287	315	386	328
40~49	8,581 (28.3)	1,824	1,544	1,206	391	293	238	260	402	393	565	766	699
50~59	5,679 (18.7)	1,345	659	422	155	187	149	201	423	319	481	706	632
60이상	2,912 (9.6)	708	175	52	28	46	62	121	200	187	323	482	528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2009년), 내부자료.

5. 전북 농촌지역 고용현황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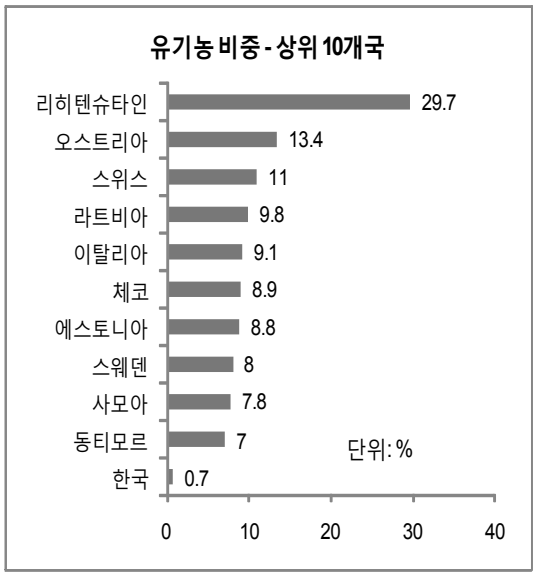
- 고품질 농업 기반이 중요
  - 직접적 일자리 다수 창출
  - 이와 연계된 다양한 혁신적 일자리(신유통), 공공적일자리 창출
- 지역고용승수 효과가 가장 큰 농촌관광 육성
- 창업지원 체계화
  - 고용없는 성장시대에는 농촌에서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남
  - 농업외 고용이 더 큰 폭으로 성장
  - 베이비붐세대 은퇴가 본격화: 이들을 지역 인적자원으로 활용
- 보건/복지/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증대
  - 농촌지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고용창출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
  - 외국사례를 보면 농촌지역이 과소화되면 장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많은 일자리
  - 지역내 자생력을 가질수 있는 농촌형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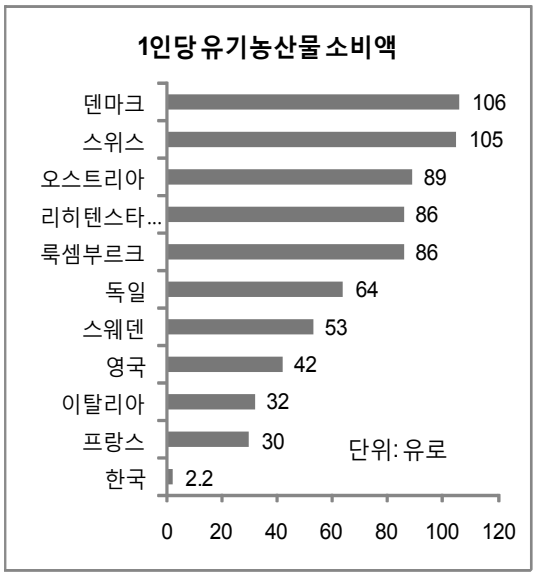
- 공공부문이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재조직화
  - 농촌지역에서 가장 양질의 직장인 공공부문의 지역내 역할 미비
  - 지역내 공무원의 거주여부가 생활서비스 일자리 유지에 매우 중요
  - 외국사례를 보면 공공부문 종사자의 지역내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큼

Ⅳ. 전북 농촌고용창출 기본 방향

1. 전략1: 전북농업을 고품질농업(유기농)으로 전환

- 국내외 사례를 보면 유기농 소비시장은 매우 높은 성장세, 특히 국내의 경우는 선진국에 비해 유기농 소비비율이 낮아 향후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큼
- 유기농 공급과 수요 불일치 문제
  - 소비가 확대되고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 초과공급문제 발생 ➔ 가격프리미엄 불가능
  -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 가격 차 감소
  - 유기농산물을 일반농산물로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
- 유기농업 개발을 위해서는 수요성장(개발) 고려한 공급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자료: IFOAM(2009),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

- 유럽의 ORGAP와 같이 전북 차원의 유기농 실행계획 프로젝트 실시

〈유럽의 ORGAP(organic action plan) 프로젝트 사례〉
· 2001: 유럽의회 스탭의 실행계획 제안
· 2002: 실무연구그룹–〉 실행계획, 평가/모니터링 시스템 제안
· 2003: 제안서검토(유럽의회,이해관계자)/수정/확정
· 2014~: 예산실행, 메뉴얼개발(농민, 평가, 모니터링 팀)

2. 전략2: 전북 농촌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상품화(전북지뜨)

- 2009년 현재 전북의 농촌관광 점유율은 4.7%로 2006년에 비해 약 5% 가까이 하락
  - 이에 비해 경쟁 지역인 경북, 경남, 충남은 점유율을 높이고 있음
- 프랑스의 지뜨와 같은 전북지역의 네트워크화된 농촌관광상품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
  - 전북지뜨의 등급화 브랜드화 전략 개발
- 전북지뜨를 인증, 관리할 전담 행정조직 신설

3. 전략3: 창업지원체계 구축

- 취업유발계수가 큰 농림어업부문의 선도 농어업인·기업, 귀농·귀어 창업 농어업인·기업 지원 확대
  - 농촌지역 주민의 경우 창업시 법률적/기술적 문제에 대해 도시지역보다 더 큰 애로점을 호소 -->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농업기술센터 혹은 중소기업지원센터 등에 설치
  - 전북차원의 농촌창업 모태펀드를 확보하여 농식품분야 유망업체에 집중투자
- 취업애로층, 여성농업인, 미취업자의 지역기업·서비스산업 취업 교육, 알선, 보육지원 등 적극 지원
- 귀농·귀촌 인구의 적극적인 유인과 교육 강화
  - 베이비붐세대의 제2창업코스로 귀농·귀촌 유인을 위한 적극적인 창업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시행

* 향후 10년간 712만명 베이비붐세대의 2%(14만명)가 농촌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
전북은 이중 20% 유입(2만8천명)을 목표로 전략 수립

4. 전략4: 농촌형 사회적기업 육성(로컬푸드, CB, 마을기업)

- 완주군/진안군 모델 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산
  - 전북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모범이 되는 완주군과 진안군의 사회적기업 육성 모델이 있음
  - 이 두개 시군의 경험이 공유되도록 지원하고, 시군간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창원의 협의체 구성
- 노인복지, 지역개발 거버넌스, 녹색성장, 환경관리, 로컬푸드, 보건복지, 평생학습, 준공공 교통 등 농어촌지역에서 수요가 있는 서비스를 공급함과 동시에 고용 창출
- 특히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고학력, 경영마인드의 귀농·귀촌 인력(베이비붐세대)을 지역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
- 시도 포괄보조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등 지역커뮤니티지원사업 체계화
  - 정책위상 정립, 카테고리화, 사업관리, 모니터링/성과 관리 체계화
- 지역제품 소비 조달전략 수립: 예산분석-> 사회적기업과 연계되는 지원사업 도출

5. 전략5: 공공부문 일자리 재조직화

-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재조직화(나누기)를 통한 고용확대
- 현재 많은 공무원이 근거지는 주변 도시지역 --> 지역생활서비스 분야 일자리 감소 --> 지역쇠퇴의 악순환

* 롯데리아가 있는 군지역 특징(서천, 함양 등): 대부분의 공무원이 지역에 거주

- 군단위 행정일자리 나누기
  - 행정 공무원은퇴한 후 남는 TO를 풀타임이 아닌 2명 이상의 파타임, 혹은 유연근무제(3일근무) 공무원 채용
  - 안정적 일자리 확보될 경우 우수한 귀농자 유치 가능
- 행정선진화와 연계
  - 유연근무제, 파타임(비전임) 행정공무원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업무명세화가 필요
  - 경성적 정책사업(하드웨어사업)은 예산 집행이 사업 성과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정책사업 과정에 크게 관여할 필요 없이 행정서류 작업만으로 사업의 집행이 가능. 그러나 네트워크와 주민역량강화를 중시하는 연성적(소프트웨어) 사업 중심의 사업에서는 이전과 달리 공무원이 주민과의 접촉을 통한 변화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 그러나 현재 공무원 조직은 연성적 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순환보직, 조직의 경직성 등)가 있음
  - 외국의 경우도 이 같은 한계를 경험하고 연성적 정책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 공무원 조직을 반관반민 조직으로 개편 함

- 현재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사업이 연성적 사업임.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업은 진안군 귀농귀촌지원센터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여, 행정기구 내에서 일정기간 인큐베이팅을 거쳐 독립시키는 행정업무 재조정이 필요

지역사회와 사회적기업

3 임경수 ((주)이장)

1. 들어가기

우리나라 농촌마을이 생태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아름마을사업, 녹색농어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등의 마을진흥사업에 참여해 왔다. 이러한 마을진흥사업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바탕을 둔 공모방식,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사업, 외부 전문가의 참여, 마을이라는 한정된 공간 대상 등 이제까지의 지역개발사업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마을진흥사업은 마을진흥이라는 목표를 단순한 소득증대,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두고 있으며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을의 농산물, 관광상품, 지역의 가치를 팔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마을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단순한 소득원 개발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마을이나 지역 간의 지나친 경쟁에 의해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농촌지역의 마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마을만들기 운동을 알게 되었다. 마을만들기 운동은 주로 도시지역에서 활발하게 벌어졌는데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생활공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부방운동, 주민자치활동, 마을디자인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지난 2004년부터 농촌진흥사업에 참여한 전문가와 도시의 마을만들기 활동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마을만들기 운동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를 운영되고 있다. 이 모임을 통해 그 동안 내게 낯설었던 지역, 자치, 공동체 등의 단어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최근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 회사도 2007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아마도 우리 회사가 지역의 가치를 높이려 하고 있고 바람직한 지역사회의 모습을 지역공동체라고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마을사업을 하게 되면서 마을만들기 운동을 접하게 되었고 마을만들기 활동가들과 교류하면서 바람직한 지역사회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상상이 현실이 되어야 우리 농촌을 살리고 농촌과 도시가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도시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에 뿌리박고 일하기 바란다. 성장, 효율, 경쟁, 약육방식의 시장에서 생존하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다른 기업, 단체, 지역주민과 공생하는 사업적 기업이 되어야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마을만들기운동과 지역공동체

가. 마을만들기 운동

마을만들기 운동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지만 일본의 마을만들기 운동을 국내에 소개하여 마을만들기 운동을 촉발한 김찬호는 일본의 마을만들기(마찌쯔구리)에 대해 "지역공간을 주민들이 스스로 디자인해나가는 과정"이라 정의하고 있다.[1]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 마을만들기 운동은 정치, 문화, 예술, 건축, 농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목적, 내용, 방법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 운동은 마을 디자인, 마을 가꾸기, 마을 만들기, 마을진흥사업, 생태마을운동, 공동체 운동, 주민자치운동, 마을의제 운동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 운동은 일본의 마을만들기 운동과 비교할 때 보다 폭 넓게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마을만들기 운동의 정의에 대한 논의가 성숙되어 있지 않지만 우선 "지역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래 전부터 마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활동이 있어 왔고 특별히 유사한 가치관이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한 마을에 들어가서 살거나 새로운 마을을 만들려는 노력도 있어 왔다. 그러나 마을만들기 운동으로 불릴만한 활동은 김찬호가 일본의 마을만들기 운동을 『이런 마을에서 살고 싶다』라는 책으로 소개한 1997년 무렵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2] 일본의 마을만들기 운동은 우리나라에 있어 지방자치의 시작과 맞물리고 공간을 새로운 문화창조의 대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와 맞물리면서 다양한 창발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도시에서의 마을만들기 운동은 서울 인사동에서 지역의 정체성과 장소성을 찾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면서 북촌 한옥마을로 이어졌으며 여러 도시에서 차 없는 골목 만들기, 쌈지공원 만들기, 어린이 통학로 확보 운동 등으로 번져나갔다. 도시에 있어서 마을만들기 사례 중에 대구의 삼덕동의 사례를 주목할 만한데 삼덕동에 살고 있던 한 시민활동가가 자신이 살고 있던 담장을 헐면서 시작한 골목가꾸기 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담장을 허물거나 담장을 이쁘게 꾸미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이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담장을 허물게 하는 주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삼덕동의 마을만들기 운동은 단순히 골목을 꾸미는 일에만 그쳤던 것은 아니고 삼덕동 내에 청소년 쉼터, 마을 미술관, 마을회관 등을 만들어나가고 마을 축제를 운영하는 등 삼덕동의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1) 김찬호, "일본의 도시화 과정에서 마을만들기의 전개와 주민참여",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 13권 11호, 2000년 6월,

2) 김찬호역, 야스히로 엔도 지음, 『이런마을에서 살고 싶다(주민들이 직접 나서는 마을만들기)』, 황금가지, 1997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 하다고 살 수 있겠다. 도시의 마을만들기 운동에 있어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사례는 서대문구 장천동, 서교동 일대 소위 홍대 앞 클럽을 중심으로 한 거리문화 운동이다. 도시 마을만들기 운동에 앞장섰던 최정한에 의해 2001년부터 시작된 홍대앞의 거리문화운동은 홍대앞 거리를 클럽이라는 독특하면서도 젊고 하위적이며 생산적인 문화활동을 통해 지역공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하지만 홍대앞 거리문화운동에 있어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홍대앞 거리문화운동이 골목을 정비하거나 아름답게 만드는 디자인 운동이나 단순한 거리문화축제에서 벗어나 한 달에 한번 씩 열리는 클럽데이와 일년에 한 번씩 열리는 로드 페스티발을 통해 홍대앞 거리의 클럽들이 경제적인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성미산의 나무를 지키기 위해 시작된 마포구의 마을만들기 운동은 대안학교, 동네부엌, 생협, 지역방송. 최근에 개관한 마을 극장 등 지역주민의 저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기도 하다.

농촌의 경우는 오래 전부터 농촌지도자들에 의해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왔지만 일단의 전문가들과 농촌마을이 결합하여 마을만들기 운동을 시도한 사례는 90년대 후반 녹색연합의 금산 건천리 생태마을 사업이 그 시작인 듯 하다. 금산 건천리의 생태마을 사업의 결과는 전문가와 마을주민들간의 간극으로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지만 녹색연합은 강화도 장화리, 무주 진도리, 홍성 문당리 생태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촌에서의 마을만들기 운동을 주도하였다. 특히 홍성 문당리에 있어 주형로라는 마을지도자와 녹색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가 결합하여 농촌마을에 있어 마을만들기 운동의 전형을 제시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농촌살리기, 그린투어리즘의 차원의 농촌 마을가꾸기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벌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농촌에 있어서 마을만들기 운동은 정부의 지원으로 도시에서의 마을만들기 운동과 달리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사업영역으로 발전하게 되어 농촌마을의 마을만들기과 관련한 비즈니스 그룹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정부의 참여, 사업적 영역으로서 전문가 참여, 마을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 일부 농촌마을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 화천 토고미마을, 양평 부래미 마을, 남해 다랭이 마을 등 소위 스타 마을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농촌에 있어 마을만들기 운동의 또 다른 흐름으로 농촌지역에 생태적인 삶을 지향하는 일단의 사람들에 의해 새로운 마을을 만들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외국의 의도적 공동체 운동(Intentional Community)처럼 어느 정도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면서 외부와의 적절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경남 산청의 안솔기 마을, 무주 진도리의 귀농마을, 경남 함양의 청미래 마을, 최근 장수군청의 지원으로 시작된 전북 장수 하늘소 마을. 최근 농림부가 지원하는 전원마을사업을 활용한 전북 진안 새울터 마을, 충남 서천 산너울 마을 등이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나. 마을만들기와 지역공동체

농촌마을과 관련한 사업에 참여하면서 "마을만들기"보다는 "마을가꾸기"라는 단어를 선호하였다. 농촌마을의 경우 새로운 마을을 만든다기 보다는 기존의 마을을 좀 더 마을답게 가꾸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활동을 "마을만들기"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마을이 점차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마을이 해체되고 있다.

우선 마을이라는 지역적이면서도 특이한 공간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도시에서의 마을이라도 일정정도의 역사성을 공유하고 계승하는 공간이었고 기본적인 생활편의나 복지, 문화서비스가 일어나는 생활공간이었다. 하지만 역사성이나 지역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건설과 생활 및 교육 여건, 부동산 가격의 차이에 따라 잦은 이사를 하는 생활패턴의 변화, 대규모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소비행태의 변화는 도시에서 마을이라는 공간적 개념을 주민들이 스스로 인지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농촌에서도 양태는 다르지만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예전의 마을이라는 공간은 생산과 함께 생산물의 분배와 소비가 결합된 공간이었지만 이제 생산만 이루어질 뿐 생산의 분배와 소비는 일어나지 않는 공간이 되어버렸으며 이제 그 생산마저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마을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생산조직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예전의 농촌마을은 마을 안에서 오롯이 교육과 문화활동이 함께 벌어지는 공간이었지만 이제 교육은 광역화되었고 문화활동은 거의 피폐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농촌에서의 소비행태 또한 도시를 닮아가면서 인근 도시의 대형유통매장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나 농촌 모두 마을주민들이 공유하고 있던 마을이라는 공간을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적 여건들이 엷어지면서 마을공간 개념이 해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개념의 해체는 물리적 측면에서 마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마을에서 벌어지던 다양하고 중요한 인간적인 고리들도 해체하고 있다. 예전의 도시 마을의 시장 골목에서 좌판을 벌이고 잡다한 야채를 파는 할머니는 젊은 새댁에게는 새로운 반찬거리와 요리법을 알려주는 요리선생이었고 철물점의 주인은 철물과 전기기구를 파는 상인이기도 했지만 집수리와 전기공사의 마을 컨설턴트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도시인들은 바코드를 매개로 연결되는 대형유통매장에서 의미 없는 인사를 던지는 캐셔를 중심으로 문화가 상실된, 인간미가 상실된 소비생활을 오히려 문명적인 것이고 진보적인 것으로 받아드리고 있다. 농촌에서도 생산의 동반자이며 식량을 함께 나누던 마을주민들은 이제 자신의 농산물을 하나라도 더 팔아야 하는 경쟁자가 되었거나 그런 경쟁도 할 수 없는, 그저 자신의 농업노동으로 자신의 삶을 간신히 연명하는 노인만이 이웃이 되어 인간적인 교류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심리적, 정서적 마을의 개념도 함께 해체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물리적, 정서적 마을 개념의 해체가 경제적인 영

향을 지대하게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 마을이던 농촌마을이던 그 정도는 달랐지만 마을을 중심으로 내부순환적인 경제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다. 즉 마을에서의 한 개인의 소득은 일정부분 마을주민들의 소득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얻어진 소득은 다시 마을 주민들의 소득으로 분배되는 재분배효과내지는 순환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창출된 부가 끊임없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제구조로 변하고 있다. 소비경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정한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던 소규모 상업은 이제 다른 마을, 더 나아가 다른 지역과 경쟁해야 하고 심지어 거대자본이 경영하는 대형유통매장과 경쟁해야 한다. 실제로 중소도시의 상점들은 끊임없이 업종을 바꾸고 있고 작은 점포로 분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으며 농촌의 소도읍의 소규모 상업은 거의 침체하고 있다. 결국 어느 누구든 거대자본과 경쟁해야 하지만 거대자본이 마련한 소비시장에서 소비할 수 밖에 없는 이중적인 착취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다시 마을을 해체하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거대자본의 커다랗고 두려운 힘은 "세계화"로 미화되고 있다.

여기에서 마을만들기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만들어진다. 즉 우리가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대상은 아마도 마을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은 아닐 것이다. 예전의 마을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은 마을주민들의 자치, 문화, 경제활동을 규정하는 외연적인 틀이었을 뿐이다. 물질의 자유로운 이동이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 에너지의 유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마을은 삶을 꾸려가기 위한 가장 작고 효율적인 공간 영역이었을 것이다. 이제 물질과 에너지의 자유로운 유입과 유출이 허락되고 더구나 정보가 손쉽게 전달하는 현대에 들어 그런 외연적 틀은 더 이상 많은 의미를 가지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마을만들기의 대상은 마을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마을을 공동체로 만들었던 마을의 메카니즘이고 이제 마을이라는 외연적 공간을 벗어나 지역으로 활동영역을 넓혀 지역이라는 공간과 조우해야 할 것이다. 마을만들기가 지역으로 외연을 확대하면 "세계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공동체적 지역화"라고 했던 『오래된 미래』의 저자 헬레나 노르베르호지의 주장과 맞닿게 된다.

즉, 마을만들기 운동은 물리적 공간 디자인 운동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는 자치운동이며 문화적으로는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운동이며 경제적으로 순환과 나눔의 공생운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마을만들기 운동은 세계화를 방어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3)]

이러한 지역공동체의 관점으로 볼 때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가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겠지만 거꾸로 지역공동체가 사회적기업이 사회적목적과 재

3) 공간문화센터의 최정한은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공동체 문화와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문화적으로는 인디문화, 경제적으로는 인디기업을 통해 커뮤니티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커뮤니티 경제란 마을단위의 경제가 아니라 마을 혹은 지역의 네트워킹을 포함하는 의미로 마을경제 네트워크를 의미하고 있다.

정적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토대의 기능을 할 것이다.

3. 국내 지역개발사업의 현황과 새로운 지역사회의 대응

가. 지역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4)]

지역개발사업은 지역문제 해결을 통해서 지속가능성의 확보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번영, 사회적 통합, 환경적 가치의 고양 등을 도모하는 공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사업은 1950년대 후반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시작으로 1970년대 새마을운동, 1980년대 정주권개발사업 등으로 발전해왔고 참여정부에 들어 지역혁신, 균형발전의 개념이 지역개발사업에 적용되면서 수적, 질적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생겨나 기존과 다른 방식의 지역개발사업들이 추진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농림부를 중심으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특히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지역개발사업을 하나의 법과 계획에 담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은 '08년 기준으로 균특회계에 의해 14개 중앙행정기관의 253개 단위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삶의 질 사업 관련으로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 육성 등의 4개 분야에 12개 중앙행정기관이 1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많고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많은 예산이 지역에 지원되고 있지만 지역사회는 눈에 띠게 살기 좋아졌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은 듯 하다. 사실 지역개발의 목표는 지역을 살기좋게 하는 것이고 살기좋은 지역으로 변화했다면 인구가 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농촌지역과 소도시들이 인구유출과 급격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의 지역개발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기존의 지역개발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지역에 있던 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은 놔두고 새로 만드는 것에 치중에 해왔다. 그래서 새로운 주거단지, 관광단지, 산업단지를 만들면 지역개발이 되는 것이고 지역이 잘 살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놔두고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규모 광역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외부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의 효과와 수익은 대부분은 외부로 유출된다.

---

4) 2008년 7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최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도전과 구상」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한 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박사의 "지역개발정책의 성과향상을 위한 과제"의 발표문을 중심으로 정리

둘째, 지역주민의 위한 지원사업은 대부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지역주민, 혹은 조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지원사업의 성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한 부처에서 지원을 받는 주체가 다른 부처의 다른 사업의 지원받는 일로 자주 일어난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일부 주체에 지원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지원사업으로 만들어진 성과가 지역에 다시 투자되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 성과는 인근 도시로 빠져나간다. 예를 들어 지원사업으로 집적된 자본의 증식은 인근 도시의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투자된다.

셋째,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주체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 지자체는 복지예산을 활용하기 쉽다. 대부분의 지역개발사업은 국비 50%, 도비 25%, 지방비 25%로 구성되는데 경쟁력을 갖춘 주체가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 지방비 25%를 보태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 즉 이미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지역주민을 위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농촌지역에 양극화가 촉진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성과를 지역에 집적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지역의 자산이 빈약해져서 스스로 발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고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감소에 의해 일정수준의 소비력과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이로 인해 다시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와 있다. 또한 그 속에서 더욱 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나. 지역사회의 새로운 대응

지역사회가 살기좋은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경쟁력 중심의 지역개발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인구감소와 경제침체, 인구감소의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와 있는 지역의 경우 일정수준의 지역 내 소비력과 구매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인구를 유지해야 한다. 인구유출을 감소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문화, 복지, 먹거리 등의 건강성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다.

두 번째는 외부자본에 의한 지역개발보다는 내부 자산에 의한 지역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빈약한 내부 자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고 성과가 만들어지는 시간은 많이 소요될 수 있지만 사업의 성과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의 경험은 고스란히 지역에 남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지역경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모든 경제행위는 시장에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더욱이 지역경제는 단순하게 가격, 품질, 효율으로 결정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다. 지역사회의 소규모성, 친밀성, 관

계망적 특성 때문이다. 우리 지역사회를 유지시켰던 것은 어쩌면 시장구조 바깥 부분이었고 지금 지역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이러한 시장 밖의 매카니즘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5] 시장 밖의 보다 소규모적이고 관계망적인 경제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그래야 지역경제는 살아난다.

네 번째 결과적으로 지역에 돈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돈이란 말은 돌고 돈다고 해서 나왔다고 한다. 돈이 순환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현재 지역경제는 돈이 돌지 않는 구조이다. 열심히 벌어도 인근 도시에 나가 돈을 다 쓰고 만다. 지역으로 들어온 돈은 인근도시로, 인근도시의 돈은 대도시로, 대도시의 돈은 거대자본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열심히 돈을 벌어도 지역은 여전히 허덕인다. 열심히 벌어도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역에 돈이 순환하는 지역순환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인식해야 한다. 현재 행정체계는 중앙의 각부처, 지역정부의 각 부서의 칸막이가 강해 산업은 산업으로만, 교육은 교육으로만, 복지는 복지로만, 문화는 문화로만 바라보고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산업정책은 곧 문화적 파급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교육정책은 복지정책과 맞다 있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하나의 '통'으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순환경제가 구축될 수 있다.

아마도 살기 좋은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내에 지방정부와 다양한 시민단체, 여러 수준의 기업, 풀뿌리적인 대안경제 조직 등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일 것이라 상상된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개인은 개인의 의지와 역량에 맞는 직업을 찾아갈 수 있고 혹시나 개인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지역사회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부의 충격에도 견디어낼 수 있는 안정성도 가지게 될 것이다. 마치 다양한 생물이 서로 얽혀 살아가는 건강한 숲과 같은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4. 지역공동체의 주요사례

가.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동면일대는 1958년 개교한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의 설립을 계기로 주민중심의 생협활동, 문화활동, 교육환경조성 등의 지역공동체 운동을 통해 활발한 농촌을 만들어왔다.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는 1970년대 유기농업을 도입하여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농촌지도자와 농촌지역 일꾼을 양성하면서 지역사회운동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많은 풀무학교 졸업생들이 지역에 남

5)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분을 대안경제, 사회경제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필자는 이러한 경제가 지역주민 간에 아름아름 돌아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아름경제라 부르고 있다.

아 농촌의 축적된 인적자원, 지역 잠재력이 신협, 생협, 주민주도형 어린이집, 여성농업인 센터 등 다양한 풀뿌리식 농촌 자치조직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지역 역량에 의해 귀농인의 선호지역이 되어 많은 귀농인이 정착하고 있다.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는 진리에 겸손하고 인간을 존중하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전인교육 과정을 배우고 있으며, 전공부는 2년제 전문대학과정으로 바른 가치관, 깊은 교양교육, 현장학습을 통해 실제적 능력을 갖춘 젊은 농부이며 환경농업을 발전시키고 소규모 가족 복합농업을 실현하는 자립적 지역일꾼을 양성하고 있다. 풀무생협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거부하고 유기농업을 고수해온 생산 농민들의 생활협동조합으로 1980년 창립하여 초기부터 도농직거래를 통한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00여명의 채소류 생산자와 250여명의 쌀농사 생산자로 조직되어 한국생협연대, 수도권사업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생협 등을 통해 50여 곳의 3만 가정 도시소비자에게 농산물을 공급하여 연매출 50억에 육박하는 사업성과를 거두고 있다. 1970년 창립된 풀무신용협동조합은 현재 주민 조합원 2,800여명, 자산 180억 원으로 늘어나 농촌지역 서민금고 역할을 한다. 이밖에 주민주도로 건립한 갓골어린이집, 여성 농민의 권익 신장과 지역 활동을 위한 홍성여성농업인센터, 홍동면 문당리를 중심으로한 환경농업단지와 부대시설인 홍성환경농업교육관이 있으며 지역신문이나 출판 사업도 활발히 이루어진다.

홍동지역은 풀무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스스로 다양한 풀뿌리식 농촌 자치조직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지역 역량이 귀농하려는 도시민을 유입하여 많은 귀농인이 정착하였다. 이러한 풀뿌리 조직이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풀뿌리 조직을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민이 이주가 일어나는 선순환적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사진 9〉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전경



〈사진 10〉 홍성 풀무학교 전공부 전경



〈그림 11〉 풀무생활 협동조합 전경



〈그림 12〉 홍동면 갓골 어린이집 모습

나.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 실상사가 위치한 전북 남원시 산내면(11개리)와 운봉읍, 인월면, 아영면, 함양군 일부지역이 일종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공동체의 시작은 실상사가 중심이 되었는데 첫째, 생명살림과 생명평화를 위한 생명운동, 둘째, 자립과 협동, 조화와 공생을 추구하는 소지역 도농 공동체 운동, 셋째, 귀농자 정착지원 및 농업인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넷째, 유기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유통을 위한 지원사업 다섯째, 청소년, 부녀자, 노인 등 지역주민의 교육, 문화,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여섯째, 농촌과 도시의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지리산 실상사는 귀농자를 위한 귀농전문 교육기관인 실상사 귀농학교, 사회생활 은퇴 후 전원과 시골에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려는 분들을 위한 실버귀농학교, 아이들에게 생태적 삶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지리산 어린이 계절학교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제의 생명살림강좌 등을 운영하는 '인드라망 지리산 교육원', 20여만평에 대단위 유기농업단지인 실상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계획을 진행하는 '지리산 친환경 영농조합'이 있고 여성농업인의 영농교육과 가사, 건강, 자녀교육을 상담하여 행복한 가정, 정겨운 이웃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하는 여성농업인 센터 등이 있다. 또한 젊은 귀농인 자녀를 교육하는 대안학교인 '실상사 작은 학교'가 2001년 3월, 3년 과정 비인가 중학교로 개교하였고 장차 5년제 중·고등 통합과정으로 준비 중이고 미취학 아동을 위한 산내들어린이집,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학교 '산내어린이 스스로 배움터'도 운영되고 있다.



〈그림 13〉지리산 생명축제



〈그림 14〉실상사 작은학교 학생들



〈사진 15〉 지리산 생명문화교육원 입구



〈사진 16〉 생명문화교육원 확장공사 모습

남원시 산내면의 거점 지역을 통한 지역공동체 운동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이루어 관내에 귀농인이 30가구 70~80여명의 이주결과를 가져왔고, 특히 실상사 작은학교의 교육여건 때문에 이주한 가구 수도 4가구나 되었다. 홍성군 홍동지역과 마찬가지로 실상사를 중심으로 귀농인이 이주하였고 귀농인이 중심이 되어 풀뿌리적 지역공동체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귀농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되어 인구 증가가 일어나는 선순환적 지역공동체가 형성되었다.

5.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지역화 전략

가. 사회적 기업의 지역화 전략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를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역 공동체 속에서 사회적 기업은 보다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과 재정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지역공동체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 지역 외부 시장보다는 지역내부의 시장을 먼저 들여다보자

지역 외부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이지만 지역 내부 시장은 아직까지 완전경쟁을 막을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즉, 지연, 학연 등이 작용하고 있고 긴밀한 인적네트워크를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강원도의 한 시니어 클럽은 가요교실, 요가 등의 문화활동에서 자발적인 경제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콩나물 공장을 설립하였는데 다른 대규모 콩나물 공장과 경쟁하기보다 시니어 클럽 회원과 친분이 있는 지역 내 소매점과 공급계약을 맺고 정해진 양만 납품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 지역경제의 흐름을 깊게 들여다보면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지역에서 경제의 흐름, 즉 돈의 흐름을 관찰하고 분석하면 지역경제의 순환적 흐름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고리는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지역 내에서는 사업 가능성과 성공 가능성을 갖출 수 있다.

예) 충남의 한 지자체의 공무원이 미나리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역은 서해안을 끼고 있어 횟집이 많이 있는데 횟집의 매운탕 재료 중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미나리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미나리를 생산하게 되면 횟집에도 도움이 되고 농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이 지역의 횟집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미나리를 쓰고 있었다.

○ 사업과 사업을 연결하자.

지역에서 단일한 아이템의 사업은 경쟁력을 갖기 어렵지만 사업과 사업을 연결하면 경쟁력을 갖추는 경우가 발생한다. 마을단위 진흥사업에서도 1차 농업, 2차 가공, 3차 도농교류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마을의 소득이 안정화되고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 내에서 산업간의 연계, 사업과 사업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순환적 경제시스템도 구축된다.

예) 강원도의 시니어 클럽은 콩나물 사업에서 소매점 판매를 통해 생산에 대한 자신을 가지게 되자 할머니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바로 콩나물 해장국 사업이었다.

콩나물 생산과 콩나물 해장국집이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게 되면서 사업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단기적인 지역사업과 함께 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지역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전망을 가지고 지역 공동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라면 단순한 사회적 일자리의 형태가 아니라 지역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거나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업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지역공동체는 튼튼하게 변할 것이다.

나. 지역공동체의 견인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의 사업 아이템

생태마을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방법론의 제시하고 있는 퍼머컬처에서도 생태마을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사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6] 이는 하나의 마을을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개개 마을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지역적 시스템, 즉 지역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퍼머컬처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공동체 사업은 다음과 같다.

○ 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생산자, 소비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농산물을 개별 가격에 의해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총량과 총액으로 거래하는 것

○ 공동체 텃밭 (Community Garden)

지역의 자투리 땅을 텃밭으로 바꾸어 사회적인 약자가 경작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가꾸고 함께 소비하는 것

○ 농민시장 (Farmer's Market)

대규모 유통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다품종 소량 생산 중심의 농산물을 농민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지역시장

6) 퍼머컬처(permaculture)는 호주의 빌 몰리슨이 생태마을을 계획, 설계하는 방법론을 창안한 것으로 새로운 학문이라기 보다 생물학, 농학, 건축학, 조경학 을 생태마을 계획에 쉽게 적용할 수 있게 체계화했으며 생태마을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 사회, 문화적 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 **지역 레스토랑** (Community Restaurant)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특산물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식당

○ **협동조합** (Co-op)

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동체 사업 경영조직

○ **지역화폐** (LETS)

다자간 물물교환 시스템으로 돈이 없어도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가 지역에서 유통될 수 있는 지역경제 시스템

이렇게 지역과 지역주민을 중심에 두고 있는 지역공동체 사업의 또 하나의 장점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충분하게 고려하고 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공동체 안에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원조나 지원 형태의 배려가 아니라 나눔의 배려가 될 수 있다. 국가 간의 경쟁, 지역 간의 경쟁을 무한하게 요구하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은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공동체 사업은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6. 나가며

이 글은 마을만들기 운동이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대안이며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풀뿌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 마을만들기 운동은 이제 한 시대를 정리하고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즉 마을만들기 운동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하는 내부적인 측면과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개발, 지방분권, 균형발등 정치, 사회적인 배경과 함께 세계화라는 새로운 외부적인 경제질서의 개편 등이 맞물려있다. 아마도 같은 이유로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마을만들기 운동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설정하였다. 우선 마을만들기의 주요한 사업대상은 결국 사람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마을만들기를 위한 사람을 만드는 일을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대를 구축하는 일이다. 서로 다른 단체와의 연대, 지역과 지역 간의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정부가 지원하

는 사업에 대해 비판적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마을만들기 운동에 정부가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치적, 행정적 속성은 마을만들기의 지향점을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와 절차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와 함께 일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제는 아마도 고스란히 발전단계에 있는 사회적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회적기업도 사람을 만드는 작업이다. 무엇보다도 지역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가가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내에서 지방정부, 시민단체, 풀뿌리 주민조직과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기업간의 연대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연대는 지역 내에서 혹은 사회적기업 간에 시장구조 바깥의 새로운 경제매카니즘을 구축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신중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단순히 수혜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기를 바란다. 이 바램은 아마도 많은 사회적기업가의 바램일 것이다.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작은 지역사회 하나 하나가 건강해져야 한다. 그래서 더 많은 사회적기업가가 지역사회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더 많은 사회적기업가가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박고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